

##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시스템 혁신으로 高유가 극복”

- 정상외교 강화, 연관산업 동반진출 등 해외진출 확대
- 유전펀드 및 유전전문회사 육성 등 자주개발을 제고
- 바이오에너지, 천연가스 확대 등 에너지공급 적정화
- 시스템 혁신을 통한 저소비형 사회경제 구축

노무현 대통령은 9월 28일 COEX에서 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그 원인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진단한 후 향후 나아가갈 에너지정책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산·학·연·관 및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과거와는 달리 新고유가시대라고 규정하고, 과거 단기적인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해외자원확보를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최근 해외자원개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4대 유형별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①자원개발과 에너지 및 플랜트산업을 연계시켜 지역별 중대형 프로젝트에 진출하는 전략(예: 나이지리아 초대형 유전 및 발전설비 등), ②우리의 탐사기술을 바탕으로 개발권을 획득하고 상업화에 성공하는 전략(예: 베트남 15-1광구, 예멘 4광구 등), ③우리의 구매력을 활용한 자원확보전략(예: 카타르 및 오만 LNG 지분 확보 등), 마지막으로 ④정상외교를 통해 유전확보 및 전략지역내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전략(예: 러시아 서캅카스 유전, 카자흐스탄 잠발유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전략지역내에 동반진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유형별 동반진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유전개발펀드를 조성하여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공사의 자산규모를 현재 1.1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고,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금융지원 자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석유공사를 2013년까지 지역의 메이저급(30만 b/d) 자원개발 전문회사로 육성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위해 인력, 조직 등 해외진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자원부국과의 정상외교 확대를 통해 정상차원에서 자원확보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전방위적인 자원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장관은 이와 같은 해외진출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자주개발율을 18%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자원개발과 에너지플랜트의 성공적 동반진출을 확대하여 2010년까지 에너지산업 등 플랜트 수출 200억불과 세계시장 점유율 2.5%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한전, 공기업 최초 『중소기업 기술상담 센터』개소

-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 ONE-STOP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CEO 80여명 초청 조찬강연회도 함께 열어

한국전력(사장 한준호)이 공기업 최초로 『중소기업 기술상담 센터』를 설치하고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제도를 통해 강하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적극 나섰다.

한전은 9월 13일 오전 09시 30분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 2층에서 허범도 산자부 차관보, 정태호 한전 부사장, 김준철 전기산업진흥회장, 양규현 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송혜자 여성벤처협회장 및 중소기업 CEO 8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중소

기업기술상담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 앞서 산자부 허범도 차관보가 “글로벌 경제와 기업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조찬강연을 하였다.

중소기업기술상담센터는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현장파견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센터 내에는 공급자관리, 지식정보, 배전품질, 수요개발, 송변전기술, 전자통신 등 8개 분야 기술지원반을 설치하였고, 사이버 홈페이지(www.kepco.co.kr/jungso)와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1577-8271) 운영으로 고객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분야별 현장지원조를 구성,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해결하고, 품질경쟁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등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지난 4월 「전력그룹사·중소기업 Win-Win 진대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사업에 향후 5년간 2천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26조 9천억원 규모의 제품구매 및 공사 발주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한전, 국내기업 최초로 해외 CDM사업 진출

- 중국 간수성(甘肅省) 4만9천kW 규모  
풍력발전소 건설 운영 사업 참여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는 중국 간수성(甘肅省)에서 4만9천kW 규모의 풍력발전소 건설 운영 사업(올해 10월 착공, 내년 6월 준공 예정)에 참여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해 국내뿐 아니

라 해외에서의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한전은 세계 최대 풍력발전 시장인 중국에 진출한 최초의 외국 발전사업자로서 향후 중국 풍력발전 후속사업 개발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국내업체 최초로 해외 CDM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중국 풍력설비 규모 : 현재 약 80만kW, 2030년까지 개발 목표 : 5,000만kW

총 사업비 5,750만불이 소요되는 금번 사업은 중국 최대 발전회사인 다탕(大唐)집단공사와 합자방식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의 66.6%인 3,830만불은 중국 현지은행으로부터 차입 조달하고, 한전은 총사업비의 33.4%인 자본금 1,920만불의 40%인 768만불을 출자하여 향후 20년간 2대 주주로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BOO(Build, Own & Operate)방식으로 추진되는 동 사업은 운영수익외에 CDM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2006년 1월1일부터 중국에서 시행되는 “중국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세금 및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발전량 판매가 보장되는 사업으로 매년 10% 이상의 배당수익이 예상되며, 연간 11만톤의 CO<sub>2</sub>감소로 CDM사업으로만 약 600만불(연간 약 30만불)의 부가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산출기준은 6유로/톤 (7.7US\$/톤)이며, 현재 유럽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약 2유로/톤에서 30유로/톤 사이이다.

한전은 이번 CDM 사업경험 축적을 통해 2013년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교토의정서상 제2차 의무감축 대상국으로의 전환에 적극 대비하고자 한다.

본사업은 건설중인 우쯔(武陟) 발전소(석탄화력5만kW×2기/사업규모 7,100만불), 사업승인 신청중인 주리산(九里山) 발전사업(초임계석탄화력60만kW×2기, 사업규모 6.2억불)에 이은 한전의 3번째 중국 진출 발전사업이다.

## 한국중부발전(주), 중소기업 정보화지원(ERP) 협약체결

한국중부발전(주)(사장 정장섭) 정보화추진실은 9월 7일 본사 1703호 대회의실에서 정보화지원 선정업체, 개발업체 등 8개업체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ERP) 3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중부발전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영관리기법 및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종합정보화 패키지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제품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선진 업무프로세스를 도입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에 보다 앞선 기업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날 서명식에서 이창희 관리본부장은 "발전산업은 다양한 기술과 업종 및 사람들이 모여 일상생활 및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고품질의 "전기"라는 상품을 만드는 곳으로 오늘 협약을 체결하신 협력업체의 품질 및 경영효율 향상이 바로 중부발전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며,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합심하고, 특히 협력업체 사장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성공이 어려운 분야로 중부발전도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살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성심성의를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업체대표로 성일SIM 우양호 대표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두가 합심하여 진정 각 기업에 필요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화답하였다.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은 협력업체에 종합정보화 패키지인 ERP 구축을 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ERP POOL(개발업체) 선정 구성하였고, 2단계의 평가를 거쳐 지원한 21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최종 선정되어 정보화를 구축하게 되

며, 지원내용은 최대 5000만원으로 선정업체가 총구축비의 25% 이상을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9월부터 시작하여 연말까지 정보화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 한국동서발전(주), 발전회사 최초 부부과장 탄생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사장 이용오)에서 부부가 나란히 과장으로 진급, 최초의 부부과장이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표한기(37), 정세라(36) 부부. 이들은 최근 시행된 동서발전 초급간부 임용고시에 나란히 합격, 지난 9월 20일 각각 당진화력 시운전 과장과 홍보 과장으로 진급하는 경사를 맞았다. 지난 98년 당시 영월화력에 근무하던 정세라씨가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표한기씨가 근무하던 동해화력을 방문한 것이 인연이 되어 만나게된 두 사람은 1년간의 열애끝에 99년 결혼, 올해로 결혼 6년째를 맞고 있다.

사내 커플로 회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부들에 비해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이해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두 사람은 회사 생활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업무에서나 자기 계발 측면에서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게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평소 충실한 회사 생활과 깔끔한 업무처리로 주변의 평판이 좋았다"면서 "특히 정세라씨의 경우 회사 최초의 여성 과장인 만큼 여성 인력 활용 측면에서 회사측이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주 초급간부 승격인사를 통해 분사 이후 최초의 여성 과장 승진자 두명을 포함 총 37명의 신규 과장 인력을 선발하였다.

## 한국남부발전-(주)에코아이, 풍력발전 CDM 추진을 위한 MOU체결

한국남부발전(주)(사장 김삼갑/이하 南電)은 지난 9월 13일 (주)에코아이(대표이사 정재수)와 풍력발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금번 양해각서 체결은 풍력발전 CDM 추진에 따라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의 리스크 완화 및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를 기하고 정부의 승인, 국제기구 등록에 따른 전문성을 제고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다.

풍력발전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가 정하는 3가지 메카니즘 중 하나로 향후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 등록시에는 온실가스 저감 크레딧(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확보하게 되어 사업 경제성을 높일 수 있고 친환경 기업 이미지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CDM 사업 공동추진 기관으로 선정된 (주)에코아이는 강원풍력발전 사업추진계획서를 정식 등록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분야 CDM 추진실적을 보유한 유일한 업체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향후 한경풍력2단계 · 성산풍력 · 태백풍력의 CDM 사업 성공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국남동발전, 2005년 호주 세계석탄회의의 한국대표로 주제 발표

한국남동발전(사장 박희갑)은 2005년 9월 15일~16일, 양일간 호주에서 개최된 2005년 호주 세계석탄회의에서 국내 에너

지 관련 기업을 대표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호주석탄회의는 세계 석탄 최대수출국인 호주에서 격년제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관련회의로, 생산자 및 구매자를 비롯한 무역업자(Trader), 금융기관, 석탄분석 기술자 등 세계 석탄산업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다. 회의 진행은 각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참가자들의 토론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현 석탄산업의 문제점 및 현안사항이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해결방안과 공조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석탄 수급 및 가격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금번 2005년 석탄회의에서는 전 세계 각국에서 약 3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올해의 주요 의제는

- 호주 석탄산업과 교토의정서
- 호주 신규 광산 개발 가능성
- 석탄산업과 새로운 금융기법
- 세계 석탄산업의 수요와 공급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관련 회사를 대표하여 우리회사 연료팀장(이용재 부장)이 초청되어, "Coal Purchasing Strategies for Korea"란 주제로 한국의 발전 산업과 석탄사용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우리 회사의 신규발전소인 영흥화력 가동에 따른 사용량 증대와 이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한 이해와 협조 분위기를 전달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세계 속에서의 주요 발전사인 우리 회사의 위상을 확인하였고 Global Power Leader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생산자 및 구매자들과의 별도 회의를 통해 호주, 인도네시아 등 주요 석탄 생산국들의 광산 개발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는 기회도 갖게 되었으며, 향후 우리회사의 당면과제인 해외 석탄광산 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 참가 자료는 국내 발전사간의 연료 구매분야 공동 구매분야 협력 증진 차원에서 타 발전사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 두산중공업, 국산 원전설비 美 수출

- 와츠바 원전용 증기발생기 4기

- 미국 원전 교체 및 신규건설 시장 진출 '청신호'

두산중공업(사장 김대중)은 미국 와츠바(Watts Bar) 원자력 발전소용 증기발생기 4기 제작을 마치고, 발주처인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공장 사내부두에서 출하 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테네시주 스프링시티에 위치한 1,254MW급 와츠바 원자력발전소는 20여년이 넘는 노후 발전소로 현재 설비교체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두산중공업은 지난 2002년 8월 이번 증기발생기 교체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에서 가열된 경수를 고온고압의 증기로 만들어 터빈발전기에 공급해 주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심설비다. 특히 고온고압을 견딜 수 있는 고도의 설계 및 제작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세계에서 몇 개 업체만이 제작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이번 미국 원전설비 시장 진출은 지난 2002년 세쿼야(Seqoyah) 원전용 증기발생기 4기 공급에 이어 두번째다.

두산중공업 김태우 부사장은 "고유가 등으로 인해 현재 미국 원전설비 시장은 노후 설비 교체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두산중공업은 세쿼야, 와츠바 원전 등 미국 원전 핵심설비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현지밀착영업 등을 통해 미국 원전설비 시장에 적극 진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지난 2004년 10월과 올 5월에 미국 엔터지(Entergy)사로부터 아칸소(Arkansas)주 원전 1호기 용가압기 및 교체용 원자로 헤드를 수주하는 한편, 세쿼야 2호기 원전용 증기발생기 교체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는 등 미국 원전설비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효성, 「2005 프리뷰 인 서울(PIS)」 참가

효성(사장 이상운)이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 대서양관에서 열린 '프리뷰 인 서울(Preview In Seoul)'에 참가, 최근 의류패션 업체를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판, 크레오라, 에어로실버 등 차별화 가능성 소재를 대거 선보였다.

효성은 이번 전시회에서 마이판 존, 크레오라 존 등 총 6개의 컨셉트 존(Concept Zone)을 구성하고, 각 섹션 별로 특성을 살린 새로운 기능성 직물 소재를 전시해 기능성 소재의 용도를 확대 제시했다. 우선 효성의 나일론 차별화원사 브랜드인 마이판(MIPAN) 제품으로 꾸며진 '마이판존'에서는 아쿠아F, 나노 매직실버와 함께 최근 각광받고 있는 15~20 데니아급의 가느다란 원사로 제작된 초경량 원단과 다양한 멜란지 원단들을 새로 선보였다. 또한, 특수 고기능성 원사인 도전사와 분당사 등도 함께 전시되었다. 스판덱스 브랜드인 '크레오라(CREORA) 존'에서도 내알칼리성 스판덱스인 크레오라 H-100X을 비롯, 저온세탁성이 우수한 크레오라 C-400과 H-450, 내열스판덱스인 크레오라 H-350 등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이와 함께 신축성 폴리에스터 소재인 '제나두55(Xanadu-55) 존'에서는 특수 기능성 소재로 만든 원단을, '에어로실버(Aero Silver) 존'에서는 흡한속건 및 항균 소재 제품을 소개했다.

효성관계자는 "효성은 그동안 기능성 신소재들을 중심으로 고객사들과 함께 제품 개발에 힘써왔다"며, "이번 전시회에도 효성의 다양한 기능성원사 제품을 사용하는 텍스밀, 멕시 텍스타일, 삼화무역, 달성건직(주), 덕우실업(주), 태광무역(주) 등 6개 고객사와 함께 참여, 참관객들에게 효성 원사의 뛰어난 기능성을 알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활동 지원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전KDN, 전력IT 중기 R&D 지원

한전KDN(사장 임창건)은 전력IT 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씨앤에이테크 등 4개 우수 중소기업과 전력IT 분야 협력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9월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씨앤에이테크의 전력계통 영상표시반용 컨트롤러 및 구동 소프트웨어 개발, 베헤일빌더스의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GIS) 및 CAD 기반 시설물 뷰어 엔진 개발, 다산정보통신의 PLC 기반 MPEG4 영상전송시스템, 송암시스템의 배전IT 원격운영집합장치(DITROIT) 개발 및 제작 등이다.

한전KDN은 이들 기업에 총 7억2000만원을 지원, 기술개발과 마케팅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 협력과제를 추가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전KDN측은 이번 제도는 중소기업과의 상생관계를 발전시키고 공기업인 한전KDN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 현대중공업(주), 「2005 에너지전」에 참가

현대중공업(주)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김영남 부사장)가 2005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열리는 「2005 에너지전」에 참가했다.

서울 COEX에서 개최된 에너지전은 에너지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회로 현대중공업은 태양광발전시스템, 전기자동차용 전동기, 고

효율 전동기와 인버터 등을 실물 전시하며, 풍력발전기,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을 그래픽 패널로 전시하여 현대중공업의 첨단 기술을 선보였다.

국내 최초로 고효율 전동기 인증을 받아 고효율기기 산업을 이끌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태양광발전시스템, 풍력발전설비,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전기자동차용 전동기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앞장을 서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현대중공업은 고효율기기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인지도를 한층 제고함으로써 관련 제품 판매를 더욱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국종합에너지, 포스코파워로 회사명 변경

한국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크게 기여한 POSCO와 호주 최대 은행인 매쿼리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새 주주로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선도적인 에너지회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2005년 9월 9일부로 사명을 한국종합에너지(주)에서 포스코파워(주)(사장 이승우)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고유가 뚫어라' 모토 시리즈 ⑭

## 미국 국가에너지정책에서 배운다

'허리케인' 촉발 고유가로 경기후퇴론 들먹

겨울 더 큰 에너지쇼크 기다리고 있는지도

에너지원별 공급 다양화 원전 건설도 가속

에너지효율 실질적 효과 달성엔 의문 제기

'허리케인' 피해로 촉발된 고유가로 인해 최근 미국에선 경기후퇴론이 힘을 얻고 있다.

현 유가수준은 경기후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후퇴는 경제적 이유만 아니라, 소비자나 기업가들이 미래를 어둡게 보고 지출을 줄일 경우와 같이 심리적 요인으로도 일어난다.

만약 유가의 주위환경 변수 중 다른 엉뚱한데서 잘못될 경우, 혹은 유가가 더 고공비행을 할 경우 경기후퇴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현재 갤런당 3달러의 유가에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 겨울 더 큰 에너지쇼크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소비자들은 올 여름 이래 천연가스 값이 2배로 뛰는 등 주택 난방비가 치솟은 것을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 올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이 점점 유가 상승과 경제를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이 같이 미국 내에서도 유가 상승과 경제 후퇴를 걱정하기 시작한 데는 국가에너지정책법안이 통과되고 미국 정부가 직접 에너지정책을 행기자 국민들 하나하나가 이를 깊이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허리케인 피해로 고유가가 지속되자 부시대통령이 대국민 에너지절약을 호소하며 주위를 환기시킨 데 따른 효과로도 볼 수 있겠다.

고유가를 범국민적으로 극복하는 비결은 역시 정부가 이끌고 국민들이 인식을 같이 해 생활 속에 실천하는 길이 첩경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자부가 에너지정책 로드맵을 갖고 앞에서 이끌고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대국민 에너지절약의 실천을 유도해 오고 있기에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

이에 본지는 미국의 에너지정책과 생활화, 나아가 에너지정책의 향방 등을 짚어 봤다.

| 전기저널 편집실 |

## 올해 통과 미국 에너지정책법안 될 담았나

올 들어 지난 8월 미국의 포괄적 에너지 정책을 담고 있는 에너지정책법안 (Energy Policy Act of 2005)이 1992년의 에너지정책법 이후 10여년 만에 공식적인 국가에너지정책으로 채택됐다.

부시행정부는 에너지 공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2001년 1월 국가에너지정책개발단(NEPDG)을 발족, 이 해 5월 국가에너지정책(NEP : National Energy Policy)을 수립했다.

또 이 NEP에 기초한 포괄적인 에너지정책법안을 2002년,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의회에 제출했으나, 상·하 양원의 의견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고유가에 따른 소비위축 등 성장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05년 에너지정책법안이 다시 제출돼 부시 대통령이 이 지난 8월 8일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채택됐다.

이 법안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에너지 공급 확대 및 공급원의 다양화, 에너지 수요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의 관점에서 정립됐다.

## 에너지 공급 확대 및 공급원 다양화

### ▶석유 및 가스

국내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회사에 약 30억 달러 세금 감면, 유전개발을 위한 R&D 자금 20억 달러 지원, 멕시코만 심해 유전 및 가스전 개발 기업에 대한 광구세 경감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시행정부는 에너지부(DOE)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 SPR 비축량을 현행 7억 배럴에서 10억 배럴로 확대 지시했다.

신규 정제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과 주(州)의 관련 규정도 전면 재조정했다.

미국은 현재 석유 정제시설의 부족으로 2025년께에는 자국내 소비 석유 제품의 10.9%를 수입(현재 7.9%)에 의존할 것

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환경관련법(Clean Air Act 등) 등 여러 규제로 신규 건설이 부진한 현실이다.

각 주(州)별로 휘발유에 대해 서로 다른 환경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고유휘발유(Boutique fuel) 판매 제도를 폐지해 휘발유의 원활한 유통을 유도키로 했다.

외국기업이 미국의 에너지 자원 취득 시 미국에너지부, 국토안보부, 국방부 등 3개 정부기관으로부터 국가안보, 양국 무역관계 등과 관련된 조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이 조항은 중국 CNOOC의 유노칼 인수 시도 등과 관련해 까다로운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외국기업의 미국 자산 취득시도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국제협력과 관련해 중동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의 재고 및 카스피해 지역의 석유개발과 관련한 미국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북극권야생동물보호구역(ANWR)의 일부를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를 위해 해금한다는 국가에너지정책(NEP)의 권고는 하원에서는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배제됨에 따라 다소 국가에너지정책이 순조롭지 못한 점도 있다.

ANWR 유전개발은 에너지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2006년 예산항목으로 재원이 마련돼 별도의 법률로 이 지역 국유지 개발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 ▶석탄

석탄은 미국의 가장 풍부한 에너지 자원으로 전체 발전용 연료 중 50%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석탄자원의 이용을 위해 부시대통령은 2005년 재취임 당시 10년간 20억 달러를 청정 석탄 기술개발에 투자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 에너지법의 성립으로 청정 석탄 기술 개발을 위해 2006년에서 2014년까지 매년 2억 달러의 투자가 결정됐으며, 이 예산 중 70%는 석탄 가스화 기술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외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의 청정석탄기술 프로젝트



트에 투자 시 16억5000 달러 한도 내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 ▶ 원자력 발전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의 탄생으로 정부와 산업계 간의 원자력발전 2010 파트너십(Nuclear Power 2010 Partnership)을 통해 신규 발전소 건설 논의의 길이 열렸다.

이젠 지루한 논의에서 벗어나 신규 건설로 중지가 모아지고 있어 조만간 원전의 중장기 건설계획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원자력 에너지 생산 업체에 대한 면책 조항을 2025년까지 연장 시행하고, 나아가 핵폐기물 처분 요건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원전건설 및 유지관리업체에 큰 당근으로 작용돼 동기유발효과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최신 원자력 시설로 전기를 생산할 때 8년간 세금 공제혜택을 kWh당 1.8센트 부여했다.

#### ▶ 대체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풍력, 바이오매스, 매립지 가스 등)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때 부여하는 세금도 kWh당 1.8센트 공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그 기간을 2007년 12월까지 2년 연장했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개발에 2014년까지 연간 2억 달러 지원 및 연료전지의 상용화 프로그램에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2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06년 1.5억, 07년 1.6억, 08년 1.7억, 09년 1.8억, 2010년 이후 2억 달러로 각각 책정됐다.

###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최대포커스

2007년부터 썬머타임을 4주 연장해 일일 10만 배럴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썬머타임 기간은 당초 4월 첫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일요일까지에서 변경 후에는 3월 둘째 일요일~11월 첫 일요일로 한 달 늘렸다.

이밖에 에너지의 효율적 제품 생산을 위한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energy star program)을 신설, 공공주택기관에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제품 구매를 강력 유인기로 했다.

연방시설의 에너지효율 촉진을 위한 에너지절감 수행 계약(Energy Savings Performance Contract)도 재승인 했다.

나아가 연방보조금을 받는 주에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에너지효율을 25% 향상토록 요구했다.

### 평가 및 시사점

에너지정책법 2005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관련 기술 개발, 국내 석유 및 가스 기업의 자원 개발 지원과 국내 탐사 확대, 신에너지(대체 및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 이용 확대를 통한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향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법안의 의회 통과 과정에서 2015년까지 석유소비량을 100만B/D 삭감한다는 안이 배제돼 에너지 효율 대책의 실질적인 효과 달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업의 석유·가스전 개발 지원으로 해당기업들은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